



2013년 연중캠페인
새로운도약! 희망찬 미래!
안동MBC가 함께 하는 신도청시대

안동MBC는

2014년 경북도청 이전을 앞두고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중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유교문화가 실천되고
전승되고 있는 고장으로 경북북부권 지자체와 공동 출자한 세계유교문화재단을
통해 지역의 문화, 관광을 전국화, 세계화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방송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안동MBC가 되겠습니다.

실경수상뮤지컬 부용지애



차기 집행부부터 임기 3년으로 단축

2013년 긴축예산, 2012년 결산 만장일치 통과

정관개정 |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등 상근임원은 1회 한해 중임
회장에게 임기 중이라도 상근 임원 개선 권한부여



▶사우회 정기총회에는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2월 26일 세종 문화회관 개최

2013년 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 26일(화) 오전 11:00,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개정 소위원회가 마련한 정관개정(안)과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수지예산(안)을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정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장을 비롯한 모든

강영구 전회장 고문추대

MBC 1년 이상 정규직 퇴직사원
언제라도 사우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
사우회 보험수수료 지난해보다 천만원 줄어

임원(부회장-이사-감사)의 임기는 차기(2016년 출범) 집행부부터 3년으로 줄어든다.

회장은 3년 단임으로 임기가 끝나며 다른 임원들은 해당 직책에서만 1회 중임할 수 있다.

상임부회장과 총무이사 등 상근임원은

직책을 불문하고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해 6년 이상을 계속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단서조항을 달아 회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임기중이라도 상근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했다.

사우회 입회자격도 고쳐 1년이상 MBC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한 자에 한해서 사우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또 MBC 퇴직후 1년이 지났더라도 본인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우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해 그동안의 민원을 해결했다. 정관개정 내용중 임원들의 임기 및 연임문제는, 김수량 회장이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내용을 개선하고 2013년 정기 총회때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번 총회에서 확실하게 매듭지어진 것이다. 이날 총회는 이어 2012년도 결산과 2013년도 수지예산 2억 8,400여만원을 통과시켰다.

이 액수는 지난해 보다 천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올해 사우회 살림도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사우회 수입 가운데 가장 큰 수입원인 보험알선 수입이 1억 3,400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출부문에서는 경조비가 6,320만원, 정기총회와 단합대회, 회보 발간비가 3,950만원, 동호회 활동 지원비가 3,06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는 또 강영구 전회장을 만장일치로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사우회 고문은 8명으로 늘어났다.

MBC .상암신사옥 상가 1동 분양 요청 긍정검토

5월 사우회단합대회 인천 골든스카이라이프 1박 2일 행사



김수량 사우회장



김재철 MBC사장

김회장 김사장, 사우회 지원방안 논의

사우회 김수량회장과 MBC 김재철 사장이 1월 21일 점심을 같이하면서 MBC의 사우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회장은 이날 "MBC의 긴축 경영으로 사우회에 지급되는 보험 수수료가 줄어들어 사우회가 지난해 소폭의 경영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사우회 수입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내년에 완공될 MBC 상암동

신사옥내 지하 1층의 상가 1개 점포를 사우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분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사장은 이에 대해 "규모와 위치 등 상가분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것"을 경영본부장에게 지시했다. 김회장과 김사장은 또 5월에 실시 할 사우회 단합대회를 2011년 창사 50주년 기념행사처럼 1박 2일로 확대 시행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따라 올 사우회 단합대회는 5월 15일(수)과 16일(목) 이틀동안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옆 골든스카이라이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김회장과 김사장이 만난 자리에는 사우회에서 백하현 상임부회장, MBC에서 오정우 경영본부장과 상암신사옥 건설본부 김윤섭국장이 함께했다.

2013년 3월 퇴직자부터 평생회비 40만원으로 인상

총회상정 예결산안 심의 통과 정관개정안 원안대로 승인

2013년도 이사회 두차례 개최

2013년 사우회 제2차 이사회가 2월 19일(화)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려 신규입회 회원들의 평생회비를 4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따라 2013년 3월 1일 이후 MBC를 퇴직하고 사우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40만원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평생회비가 4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2005년 평생회비가 신설된 이후 8년만이다. 그러나 2013년 2월28일 이

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0만원만 내면 된다. 이날 이사회는 또 2012년도 결산 및 2013 회계년도 수지예산 (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한편 1월 14일에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는 정관개정 소위로부터 개정(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할 것을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강영구 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문화보험 제1차 이사회 및 사원총회

2013년 문화보험판매(유) 제1차 이사회와 사원총회가 2월 13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2012년도

결산을 심의하고 2013 회계년도 수지예산(안)을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문화보험 수지예산은 보험수입이 2억 1,250만원, 이자수입이 320만원으로 총 2억 1,570만원으로 짜여졌다.



한국영상대학교
KOREA COLLEGE OF MEDIA ARTS

기 많은 문들이 꿈꾸는 세상!

한국영상대학교

공주영상대학교의 새 이름, 한국영상대학교

방송·영상특성화 대학!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육성사업 선정!



www.pro.ac.kr
주소 (339-713)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학길 300

사우회 회장단, MBC 임원진과 상견례

삼암신사옥 부지-4만평 지상 14층, 2월 현재 공정 65% 7월 1일 준공예정



▶왼쪽 뒷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MBC총무부장, 김윤섭 MBC건설국장, 김수정
MBC경영지원국장, 최준식 사무처장, 박종규 총무이사,
이해걸 감사, 신대근 부회장, 이용구 부회장, 이진세 부회
장, 김용빈 부회장, 백하현 상임부회장, 임국희 감사, 김수
량 사우회장, 안광한 MBC부사장, 임주완 부회장,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오정우 MBC경영본부장

김수량회장을 비롯한 사우회 제7기 회장단과 MBC 안광한 부사장이 2월 21일상견례를 가졌다. 김회장은 'MBC의 사우회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안부사장은 '1등 MBC를 만들어 사우회 선배들의 성원에 보답' 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장단은 김윤섭 MBC 신사옥 건설국장으로부터 삼암동 사옥 건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다음 현장을 방문해 4만평 부지에 지상 14층 건물로 웅장하게 위용을 드러낸 MBC 미디어 센터를 둘러봤다. MBC 삼암동 신사옥은 2월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7월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해외출장중이어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다.

동호회 추위 털고 기지개, 봄철행사 봇물 터진다

우수·경칩 지나고 춘분(20일)에 이어 4월5일은 청명·한식. 봄나들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이다. 등산클럽을 비롯한 사우회 동호회도 기지개를 켜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등산클럽은 4월 17일(수) 봄철 등산대회를 갖기로 했다. 오전 10:00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을 출발해 북한산 둘레길 19번, 20번길 4,7Km를 걷게되는데 무수골-쌍둥이

전망대-정희공주묘-방학동 은행나무를 지나 우이우이령길 입구로 내려올 예정이다. 남시대회는 4월 24일(수)에 실시할 예정이다. 장소는 답사를 거쳐 추후에 공지한다. 골프대회는 5월 10일(금)에 충주 중원CC에서, 바둑대회는 6월 5일(수)에 사우회 사무실에서 갖기로 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특히 신규 회원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사우가독



하루살이 독백

이 연 현(편제)

오늘 나는 하루를 보내고 나서 문득 깨닫는다. 가만있자, 이렇게만 살다 가는 것인가?
오늘 뭐 한거지?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그거야 누구나 다 하는 일상생활이고, 뭔가 의미있고 가치 있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막상 대답 할게 없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런거지 별다른게 무어 그리 있겠느냐, 특별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변명하고 싶어진다.
우리나이에 아파 누웠거나 병원에가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게 최상이라고 나도 말하기는 한다. 그런데 왜 자꾸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이 분명할진데 하냥 멀은 것처럼 나날을 허송하고 있나 막막한 느낌에 반성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알겠다. 목표가 없는 것이다. 무언가 해야 되는 목표가 있을텐데 그것없이 형편대로 되는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살면 얼마를 산다고 무슨 목표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는가. 가만있어도 올 것은 병고 밖에 없을

텐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럴순 없지! 건강이 유지 되는 한 목표를 갖고 살자. 목적이 있어야 목표를 세울 것 아닌가. 목적? 산다는 목적? 살아 가야 할 목적? 생활문제? 많지!
자식들 문제, 아내의 건강, 친지에 대한 도리, 아니 그보다 더 급한 돈 문제!
아하 맞다. 제일 급한 목적이 돈이다. 돈이면 다 될것 같다. 다른 문제들은 돈이 있으면 다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겠다. 돈만 있으면 이일저일 끝내고 부담없이 내 일을, 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
돈 버는 일? 아, 딱 막힌다. 지금 우리 나이에 돈 벌 수 있는가?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돈이 되거나 생기는 것은 일해서가 아니고 월세를 받거나, 말 좀 해주고 거마비나 챙기는 것, 아니면 자식이 주는 쥐꼬리 용돈, 대부받아 집 마련한뒤 은행 빚도 재산이라 생각하는 것, 전세금 올려 받고 그걸 생긴 돈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런게 돈 버는 일인가? 아니란건 나도 안다.
일이란 그날 그날, 하루 하루 움직이고 생각했던 것이 일이었고, 그나마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정말 나는 하루살이 같다.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시시오.

평생회비

김용남(편제)01/09	이상진(보도)01/09	한용규(기술)01/14	최조남(관리)01/14	남두우(편제)01/22
이한철(편제)01/28	이용우(관리)01/29	봉필구(편제)02/05	박우용(관리)02/27	김한모(업무)03/04
金洪起(편제)03/05	李承悅(보도)03/06	김재동(편제)03/06	최신영(업무)03/07	

연회비

1월 강효복(13) 고병조(13) 고춘호(13) 권황택(13) 김광안(13) 김기도(11) 김상호(13) 김운근(13) 김정수(13) 김해원(13, 80세납부끝) 남기두(13) 노시창(11~12, 80세납부끝) 맹광호(12) 박기윤(13) 박수부(11~13) 박춘평(13) 배상호(13) 백낙왕(13) 서정호(13) 손영조(13) 신무성(13) 신형창(13) 양남중(13) 엄기원(13) 엄용열(13) 엄영수(13) 유순옥(12) 이상림(13) 이상원(대구,13) 이상형(13) 이성호(12) 이완수(13) 이용재(13~14) 이종화(13) 이진봉(09~13) 이하걸(13) 이한익(13) 장인순(14~16) 정경태(13) 정명환(13) 정상화(13) 정승호(13) 조무영(13) 지덕환(11~13) 차명륜(13) 차인태(12~15) 최호철(13) 한영희(13) 홍이표(13)

2월 강창우(11~12) 고일미(16~22, 80세납부끝) 고창근(13) 광노우(11~15) 권태규(13) 김병택(13) 김영균(13) 김점용(13) 김하일(13~17) 김한모(13~17) 김휴선(13) 류근수(13) 민경창(13) 박순웅(14) 백중석(13) 송재선(13) 안병태(13) 안영순(14) 안홍엽(10~16, 80세납부끝) 오두영(12) 오승룡(13) 윤호찬(12~13) 이기선(13) 이보근(14) 이상수(12) 이승대(07~14) 이유철(12~14) 인우삼(14) 전지웅(13) 정국록(13) 정봉일(13) 정종국(15~17) 정준모(13) 정진(15) 정진도(13) 정지조(16~18, 80세납부끝) 최승일(11~13) 최영성(14) 최홍림(13) 홍순영(13) 홍신숙(13) 황진환(13)

신규입회

金容南(편제) 010-9185-5678 / 02-2068-9981 / 구로구 신도림동 642 대림A 403-1602
李相珍(보도) 010-8991-3914 / 서초구 방배1동 930-1 방배브라운A 101-501
韓龍圭(기술) 010-8915-2417 / 02-598-7432 / 서초구 방배3동 래미안아트힐 109-1102
崔助南(관리) 010-8728-0450 / 02-769-1665 /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삼바A 7-1601
南斗祐(편제) 010-5386-9355 / 031-211-3102 /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205-21
李漢哲(편제) 010-9347-6574 / 02-6734-8535 / 강서구 염창동 272-11 롯데캐슬A 101-301
李鎔宇(관리) 010-8915-2392 / 02-3463-2535 / 강남구 도곡2동 91-5 삼성래미안A 106-804
金漢模(업무) 010-5250-0972 / 02-2652-9942 / 양천구 신정동 목동A 932-905
金洪起(편제) 010-6362-5015 / 031-918-5015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97, 1807-602 (대원아파트)
李承悅(보도) 010-3898-9370 / 02-2649-3423 / 서초구 서초동 1521-8 서초SK뷰 101-603
金載東(편제) 010-8884-8156 / 02-455-3281 / 광진구 구의3동 611 현대A 212-2001
崔信榮(업무) 010-8741-7217 / 070-8632-6639 / 서초구 방배본동 롯데캐슬헤론 104-1602

경조사항

경사

팔순 민홍식(기술)04/07	이낙용(보도)04/12	우윤근(업무)04/20	최규두(관리)05/05
이재인(대구)05/10	김대수(업무)05/29		
고희 이상열(보도)04/01	오세장(전주)04/10	장경철(보도)04/20	이재휘(편제)04/24
정영환(보도)04/24	정병준(관리)04/26	유문식(관리)04/27	김병문(관리)05/02
오영환(관리)05/06	조찬수(기술)05/16	유근혁(기술)05/22	이유철(관리)05/22
김주영(대전)05/23	장기태(관리)05/30		
회갑 이상길(관리)04/03	장석호(보도)04/06	윤종선(기술)04/09	윤재복(관리)05/02
조항민(보도)05/28			

결혼

이중구(관리)장남02/23
윤종선(기술)장녀03/16

이교윤(편제)장녀03/02
은정기(관리)3남 03/16

고춘호(업무)장남03/09
김중국(관리)장녀03/16

부음

안영제(기술)부친상01/10
지덕환(관리)모친상01/25
노영인(편제)모친상02/11
박진석(기술)부친상03/02

전병욱(관리)장모상01/19
박정인(관리)모친상02/01
고영일(업무)부인상02/12

이진봉(전주)부친상01/20
조병락(기술)부친상02/06
소원영(편제)장인상02/13

- **최기범(기술)** : 2월12일(화) 지병(파킨슨병)으로 별세했다. 올해 75세. KBS와 TBC(동양방송)를 거쳐 1969년에 TV 공채 1기로 입사해 기술연구실장과 TV기술국장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충남계이별TV 기술국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파킨슨병으로 투병해 왔다.

- **박맹의(기술)** : 2010년 7월 23일에 별세했다고 아들이 뒤늦게 (2013년 3월 4일) 알렸다. 아들에 따르면 박회원은 2009년 겨울, 빙판길에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됐는데 이부상이 별세로 이어졌다고 한다.

전화/주소변경

▶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사무처 (02-722-7416)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편제 |

강현이 010-8391-5507 / 용산구 이촌로 181, 107-304 (한강대우A)
김만기 010-5384-7229
배상석 강남구 삼성동 122-22
염영수 010-5282-1022
권혁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산73-3 경남A 3-204

1 보도 |

강영구 010-3571-5544
정진철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7-5 / 래미안이스트펠리스 1102-2602
구본학 송파구 잠실4동 파크리오A 103-1004

1 기술 |

박영채 010-2520-6644
방준식 성동구 용봉동 100 대림1차A 9-1203

1 업무 |

윤영래 광진구 구의3동 610 현대A 603-2203
이병현 파주시 동패동 한울마을 삼부르네상스 706-1803

1 관리 |

김진홍 010-5247-0098 / 신흥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갑길 71-24 (바오로농원)
윤영란 010-2111-3941 / 043-288-3679 /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부영A 110-1501
최중수 010-4382-9592

1 대구 |

권태규 010-3638-8717

1 대전 |

조준희 010-9599-5866 / 동작구 사당5동 19206 리츠빌 가-502

이 사람! 박순웅

90살까지의 도전 설계도? 그의 무한도전은 계속된다

- 맹렬인생 그는 땀기면 도전하고 반드시 이룬다

TBC(11년)에서 KBS(1년)를 거쳐 MBC(17년)에 온 박순웅(편제)사우의 삶은 예나 이제나 바쁘다. 경북 청도의 대대로 과수원을 하는 집에 태어난 그는 경북 고교 1학년 때 학생시위 주동자로 몰려 퇴학을 당하고 미션스쿨인 계성고교를 졸업했다. (당시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돌이켜 보니 이곳에서 신앙도 싹트고 여기에서 배운 수화로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영상제작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지금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해병대에 지원 입대한 그는 1965년 청룡부대 제1진으로 파월되어 13개월간 통신병으로 전투 일선에서 정글을 누빈다. 초창기여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다행히 가벼운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이때의 '생사고비'와 '해병정신' 그리고 '태권도 3단'의 무술은 이후 그를 '겁없는 무한도전의 사나이'로 만들었다. 1969년 TBC-PD로 시작한 방송생활은 1998년 MBC에서의 명퇴로 막을 내렸다. 한때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은하철도999'를 포함, 만화영화 주제가를 8개나 작사한 '영화PD'였던 연으로 퇴직 후 '알파영화사'를 차려 외국 영화를 배급하는 사업을 해봤지만 별 재미는 못봤다. 현업에 있을 때보다 퇴직 후에 더 바쁜 그는 타고난 사업가 기질로

일찌감치 財테크에도 눈을 떴다. 1978년, 우연히 가평군 설악면 청평호수 근처 땅 700평에 로그하우스 3채를 지어 판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그가 건축한 집만 여섯채, 이제 집 짓는 데는 도사가 됐다. 지금 살고 있는 상봉동 집도 2003년 대지 120평의 기존 2층 집을 허물고 6층 건물을 세워 11가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수입만도 상당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1남 2녀의 자녀들을 미국의 컬럼비아대학, 뉴욕대학 등에 유학 시켰다. 퇴직한 뒤 배화여고 미디어교육 강사를 거쳐 1999년

미국 사돈에게 놀라게 한 요리솜씨
임대사업으로 자식들 미국 유학비 충당

한식 요리사·바리스타 자격증에
영상제작론 등 저서도 3권 출간

청각 장애인에 수화 강의봉사, 장학금도 일조

부터 성균관대학의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영상제작론' 등 저서도 3권 출간했다. 초임PD 시절 '오늘의 요리'를 담당하면서 요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방송사를 그만 둔 어느 날, 과감하게 요리학원의 문을 두드렸다. 늦은 나이와 남자라는 쑥스러움을 이겨내며 2년간의 강의

와 실습을 통해 요리를 익혔고 마침내 '한식요리사' 자격증을 당당히 손에 넣었다. 지금 그가 만들 수 있는 한식요리만 스무가지가 넘는다.

얼마 전, 미국에 사는 딸네집을 방문한 길에 미국사돈(만사위가 미국인) 내외를 초청, 한식 요리를 직접 만들어 대접했다니 너무 좋아하더라. 뿐만 아니라 커피에 관심이 '땀겨' 역시 2년간의 수업을 통해 '바리스타' (barista-커피전문가) 자격증도 획득했다. 행여 그가 있는 자리에서 커피 얘기를 어설프게 꺼내지 말기를 권한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식당이나 커피점을 차릴 계획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단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성취감. 그 성취감과 도전정신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친 김에 소믈리에(와인 전문가)도 해보고 싶고 양식 요리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다.

고등학교 때 익힌 수화로 10여년째 매주 3시간씩 충주성심농아학교와 수유리에 있는 애화학교의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영상제작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다문화가정의 초·중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봉사도 겸하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농사철에는 반드시 내려가서 직접 손보고 가꾸는 고향 청도의 2천평 과수



▶은하철도 999 등 만화영화 주제가 8편 작사한 영화 PD는 2년 각고 끝에 한식요리사 자격증을 거머쥐었다.

원, 그곳에 심은 170여 그루의 감나무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로 농아장학금도 만들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한 톨도 물려줄 생각이 없고 언젠가는 좋은 일에 쓸 것이라는 그의 머리에는 지금부터 20년 후, 90살까지의 '도전 설계도'가 들어 있다. "그 정도 설계는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나?" 당연하다는 듯 반문하는 그가 존경스럽다. 그리고 궁금하다. 칠순에 도전하는 다음 목표는 뭘까.

글/ 김상옥 사우회 이사

문미회 새 회장 최영성 회원 총무 이한수 회원 유임 윤상준, 이진식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

미술부 퇴직사우들의 모임인 문미회는 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최영성 회원을 선출했다.

문미회는 1월 12일 송파구 석촌동 군산복합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회장에 최영성 회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문미회 부회장에는 백재인 회원, 감사에는 김중수 전 회장이 선임됐으며, 이한수 총무는 유임됐다.

이날 총회는 또 윤상준 전 MBC미술부부장장과 이진식 전 MBC미술센터 이사를 고문으로 추대했다.

청죽회 새회장에 이경재 회원, 총무에 이진배 회원

시설부 퇴직사우들의 친목단체인 청죽회는 1월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회장으로 이경재 회원을 선출했다.

이진배회장은 시설부장을 역임했으며 (주)토포엔지니어링 정보통신분야 감리담당으로 활약하고 있다. 총무에 이진배회원 감사에 정병준 전 총무가 선임됐다.

기술인동우회, 부회장 등 임원 선임, 총무에 김철동 회원

기술인동우회 조경구회장은 문정철 전MBC미디어텍 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부회장 문정철, 이사 김용빈, 신명수, 이우철, 이원하, 정각중, 정태식, 천복용, 황진욱, 감사 임재룡, 총무 김철동

본사지원 MBC로고 장례물품 인기폭발

3월 5일부터 장인·장모·시부모상 때도 지원 확대키로

MBC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장례물품이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MBC는 현재 회원 본인이나 부모-배우자상 때 지원하던 장례물품을 3월 5일부터 장인-장모-시부모상 때도 장례물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지원물품은 1회에 350명분이나 조문객이 많아 추가로 요청할 경우 350명분이 더 지원된다.

한편 타사 사우회 회원들은 창사기념 쌀 선물과 장례물품 지원 등 퇴직사우를 잊지않고 지원하고 있는 MBC의 배려에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원동정



김수량(기술)

공주영상대학교 총장 퇴임, 자문역 취임

사우회회장. 2월25일 공주영상대학교 총장직에서 퇴임했다. 김회장은 2005년에 총장으로 선임돼 8년동안 공주영상대학교를 전국적인 대학교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회장은 3월 4일부터 석좌교수 대우로 총장 자문역을 맡고 있다.



정경수(ANN)

회고록 '만남' 출간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前MBC 아나운서국장. 회고록 '만남'을 출간했다. 이 회고록에서는 방송계에 입문하게된 스승과의 만남부터 정치·경제·종교지도자와의 인연, 한국담배소비자협회를 이끌면서 만난 인연, 그리고 아내와의 만남 등 70평생 만난 소중한 인연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편일평(보도)

CTS기독교방송 상임고문 취임

CTS편성자문위원·前 MBC 전무. 2월1일 CTS기독교방송 상임고문에 취임했다. 편고문은 MBC프로덕션 사장과 마산-청주MBC 사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CTS의 경영014방송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이승문(편제)

자연을 주제로 27년만에 개인전

사우회남시회장·前MBC영상미술국장. 27년만의 개인전을 열기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자연을 주제로 꽃과 나비, 새 등 영상색채가 빼어난 작가만의 창의적인 작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개인전은 5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인사동 갤러리秀(02-733-5454)에서 열린다.



정수열(편제)

경희대서 언론학 박사학위 취득

극동대학교 석좌 교수. 2월 20일 경희대학교에서 논문 <지역매체의 적소연구-공동체라디오의 지역정보가치와 수용자 기대를 중심으로>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구본홍(보도)

2013년도 고대정경대 총동문회장 취임
런던개최 제4회 WCBA 방송대상 심사위원장 위촉

CTS기독교TV 사장. 고대정외과를 졸업한 구회원은 2013년도 고대정경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 또 구회원은 오는 5월 6일 영국런던에서 열리는 제4회 WCBA 방송대상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는 미국, 중남미, 아시아, 러시아 등 국내외에서 한국어 선교방송을 하는 TV, 라디오, 인터넷방송국 4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6월부터孟子를 펼친다

관심있는 회원 누구든지 전화 (02-722-7416) 주세요.

6월초부터 논어를 거쳐 맹자를 파고든다.

맹자는 논어보다 쉽고 그의 정치철학과 인생지표는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고있다. 한문공부방(홍장 이진세)은 2011년 3월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축약한 통감절요를 시작으로 격몽요결을 거쳐 5월말에는 논어를 책거리한다. 매주 목요일 10시 사우회 사무실에 열공중이다.

뜻 있는 회원이면 누구든지 전화주세요.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한문공부방/

유희근의 논어 이야기 5



- 국회의원님과 양혜왕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불황이라도 세비(歲費) 올리는 일에는 재빠르다. 200가지 특혜가 모자라 특혜를 또 신설한다. 처음도 이득이요, 나중도 이득이다.

맹자가 양혜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도나도 남의 이익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열중한다면 나라는 망합니다. 위아래 질서가 무시되고 이기주의만 발달하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어떨까? 오늘날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자(仁者) 즉 어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이익을 얻는 것을 뒤에 한다. 이를 선난후획(先難後獲)이라 한다."

논어 옹야편에 나온다.